



“금속노조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28일 7차 중앙교섭 ... 사측 ‘1차 복붙’ 2차 제시안 내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28일 오후 대구 한국업사이클센터에서 7차 중앙교섭을 벌였다. 사용자 측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2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그 외 노조 요구에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1차 제시안과 다르지 않다.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중에 타임오프 개악안을 제출한 곳이 있다”라며 “중앙교섭에는 준비가 미흡하다며 제시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개악안을 던졌더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개악안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용자협의회 입장은 개악이 아니라 고민할 테니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68개 회사 생각이 모두 다르다. 합

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은 2차 제시안을 통해 중앙교섭 요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의무’를 추가하기로 원안 수용했다. 하지만 수용하고 부속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1차 제시안에서 약간 나아갔다.

사측은 노사 공동선언의 ‘정보공유, 고용축소 부문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요구에서 정보공유를 빼고, ‘직무조사에 따른 고용 확대와 청년·고령·여성 일자리 확대’ 요구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장만 남긴 양상한 제시안을 들이밀었다.

장세은 노조 대구지부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 정부 개입을 금지하고 노사 자율에 맡기라 여러 번 권고했다”라며 “지금

까지 노사가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던 전임자 활동 범위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며 시정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행정력 남용을 지적했다.

장세은 지부장은 “금속노조 요구는 노조 독립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 노사 자율로 전임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공동으로 촉구하는 내용”이라면서 “중앙교섭에서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자”라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에 관한 교섭 진전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김일식 경남지부장은 “최소한 취업규칙이나 임금명세서를 자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측이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8차 중앙교섭을 6월 4일 경기 광명 KTX회의실에서 연다.